

# 맞춤형 학부모교육 만족도 '쑥쑥'

### 지난해 2만4900여명 참여

전북교육청이 진행하는 학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교육청의 '2018 학부모교육 운영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자 만족도는 96.8%로 전년도 91.5%에 비해 5.3%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12월까지 학부모교육에 참여한 2만4953명 가운데 8,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주간 참여가 어려운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야간 교육, 장애인·지역 아동센터·군부대·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아버지 자녀가 함께하는 주말교육 등 교육 수요 대상 운영을 다양화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내용 만족도는 97.0%, 강사 만족도는 96.6%다.

특히 학부모역량 강화 분야인 성격에 따른 자녀 돌보기, 사춘기 자녀 마음 돌보기,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시집 쓰기', '흔들' 사각사각 디딤돌,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젝트 '그림동화' 등의 강좌는 응답자 전원이 100% 만족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학부모교육 참여자는 대부분 어머니였다. 어머니 참여율이 91.1%로 압도



전북교육청이 진행하는 학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전북학부모회 워크숍.

적으로 높아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및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4.9%, 중학교 15.7%, 고등학교 10.2% 등으로 집계되면서 자녀의 학년이 저학년일수록 교육 참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부모교육 참여 경로는 학부모지원

센터 홈페이지 28.3%, 가정통신문 또는 문자 21.8%, 부모성장학교 18.3%, 지인소개 14.1%, 기타 12.1%, 밴드 5.4% 순이었다.

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관계자는 "특강, 상설 강좌, 자원 활동, 혁신교육 등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올해

도 전북교육 방향과 변화하는 사회에 부합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북교육아카데미 등 40개 강좌에서 473회의 학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총 참여인원은 2만4953명이다.

/장은성 기자

## 해외에 전북 알리는 선순환 패러다임 구축

###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에 농생명·식품 체험프로그램 지원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전략산업인 농생명 및 식품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전라북도 식품클러스터 로드 탐방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지역 5개 대학(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 45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클러스터와 기업 등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유)씨엔씨커피에서 커피 원두의 이해 및 드립커피 내리기 등을 체험한 것을 비롯해 순창고추장민속마을 고추장 만들기, 임실치즈 테마파크 치즈 및 피자 만들기 등 전라북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익산소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주)사조공장 순창공장의 장류 생산라인을 견학하며 지역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

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박종철 박사(농업법인휴앤호프(주) 연구소장)의 특강 '맥주의 원료와 Craft beer'를 통해 식품의 원료,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다.

양 나탈리아 학생(우즈베키스탄,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2학년)은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 고장인 전북의 아름다움과 이를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우수한 맛을 표현해내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에 대해 전라북도를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했다"고 밝혔다.

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의 주요 목적인 '농생명'과 전라북도 특화 사업인 '식품'을 연계해 유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친한, 친전북 인재로 성장하게 하고, 이들을 통해 해외에 전북을 알리는 선순환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양성하고 지방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 및, 지역사회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5년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오늘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 실시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여러 갈등들을 교육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를 올해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오늘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도내 초·중등 교원, 교육전문

직원 등 30명이 참여한다. 연수는 총 40시간에 걸쳐 이론교육과 실천훈련이 이뤄지는데, 참가자들은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조정자의 역량 강화,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능력 등을 키우게 된다.

또한 신뢰서를 진행 실습, 회복적

대화모임 실습,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계획 세우기 등 실천 프로그램 훈련 시간도 갖는다.

연수 이수자들은 앞으로 학교 현장의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 지원을 위한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교원 및 학생 간의 갈등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원격연수 참여자들 사이에서 실습 중심의 오프

라인 연수 개설 요구가 많아 올해 실습 중심 전문가과정 연수를 개설하게 됐다"면서 "이번 연수도 방학 중에 개설됐음에 연수대상자 30명 선발에 90명 가까이 신청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해 6개 동아리(초등 3개, 중등 3개)를 운영하고, 1,500여명을 대상으로 원격연수를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학술대회 개최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 플러스(HK+) 연구단은 지난 15일 충남대학교에서 '유교문화와 해석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홍익대 광영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충남대 인문대학 장 이근수 교수, 한국해석학회 양해림 회장, 전주대 HK+연구단장 변주승 교수도 함께 참여하며 유교문화 전반에 걸친 주제로 발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는 연세대 나중석 교수, 경북대 박근섭 교수, 전주대 김윤희 교수, 상지대 김시현 교수, 경기대 윤대선 교수, 한국외대 강미라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주대 김윤희 교수는 '근현대 유교 연구 관점의 재검토'라는 제목으로 유교문화의 근대화 과정과 현재 일상생활에서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주대 이경배·변은진 교수, 군산대 박학대 교수, 성균관대 김윤경 교수, 명지대 심상우 교수, 중앙대 김분선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열린 토론을 통해 근현대의 유교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위해 해석학과 같은 서양철학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18년 5월 1일 2018년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근현대 유교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재사유를 통해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공동체의 대안 모색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방사선학과가 제46회 방사선사 국가고시에서 졸업예정자 29명 전원이 합격해 전국 1위의 합격률을 달성했다.

## 방사선 계열 명품학과로 '발돋움'

### 전주대 방사선학과, 국가고시 합격률 전국 1위

전주대 방사선학과(학과장 한태중)는 제46회 방사선사 국가고시에서 졸업예정자 29명 전원이 합격해 전국 1위의 합격률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100% 합격률은 전국 대학 평균 79.7%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다.

방사선사는 의료기사 종류 중 하나로 신체 내부기관의 질병, 장애의 진단을 위해 방사선과 관련된 방사선물질, 장비 등 조작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이다.

방사선학과는 '국가고시 전원 합격'을 위해 체계적인 국가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

고 자기 주도형 학습을 진행하도록 돕고, 세미나 형식의 토론회를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 또, 매주 모의고사 진행하며 학습역량을 평가하는 등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학습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갖췄다.

전주대 방사선학과는 2006년 개설된 이후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실습, 학사 관리를 통해 지역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적 보건의료인을 양성해 오고 있다. 최근 차별화된 기초교육 강화, 전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책임지도교수제를 정착하여 방사선 계열 명품학과로의 발돋움 했다.

/장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